

투데이 칼럼

한중 관계 30년

한 국과 중국이 공식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만 30년이 됐다. 수교 이후 양국 교역 규모는 약 47배 증가했다. 정상회담도 40여 차례 이상 진행됐다.

각계각층의 인적, 물적 교류는 매우 활발했다. 코로나19 이전 양국을 오가던 항공편은 주 800여 회에 이르렀다. 고교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겪기 전 2016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827만 명이다.

1992년 수교 당시 4만5000명에서 20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한중 수교 30년을 맞는 양국 관계는 시계 제로 상태로 빠져들었다. 양국 관계를 이끌어왔던 경제 문제는 상호보완성에서 경쟁 관계로 바뀌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올 8월 현재 6억6700만 달러(약 8950억 원)로 4개월째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우호협력 관계'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호 신뢰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한국인의 80% 가까이 중국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이른바 MZ세대들의 대(對)중국 인식은 비교급 수준을 넘어 혐오 수준에가



정복규
논설위원

지 이르고 있다. 경제적 호혜의 기회가 줄어드는 대신에 사회문화적 갈등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지난 30년 양국 관계의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첫째, 지난 30년 역사 경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가 간 관계는 이익에 기초한 현실주의적 관계다. 국가 간 상호 이익이 늘 일치할 수는 없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한국과 중국은 상호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 특히 경제 영역에서의 상호 이익 증대를 위한 협력의 경험이었다.

둘째,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1992년 한중 수교는 사회주의권

몰락과 냉전의 종식이라는 세계사적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이뤄졌다. 한국과 중국이 결단을 통해서 수교를 했다.

질서 변화에 끌려가기보다는 변화에 편승했다. 오히려 변화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과감하게 도전한 결과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소극적으로 임했다면 지금의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각한 오늘날 질서 변화도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한다면 부정적인 측면을 감추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양국은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양국

모두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혐오적인 부분을 부각해서는 안 된다.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측면을 더욱 발굴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지역적인 문제들에 대한 집소봉대(針小棒大)식 언론훈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자국에 체류하는 상대국 국민에 대한 공공외교(公共外交)를 양적, 질적으로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언론의 메신저 역할과 함께 이들의 개인 사교의 이미지 메이킹이 국가와 사회의 여론을 만든다.

상대국과 상대 국민에 대한 인식이 바로 양국 관계 인식의 출발점이다.

새로운 질서 변화는 새로운 전략적 사고를 요구한다. 1992년 한중수교가 바로 이러한 전략적 사고의 결과물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미래의 새로운 질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30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과감한 사고가 절실하다. 전략적 판단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앞서서 변화를 이끄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중 외교 수장은 '화(和)'를 강조하고 있다. 왜 한중 양국이 '화(和)'를 원하는지 자문자답해야 할 때이다.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트러스 총리 사임’ 일면 기사 실린 신문들



지난 21일(현지시간) 런던 시내의 한 신문 판매대에 리즈 트러스 총리의 사임에 대한 반향을 보여주는 각종 신문이 놓여 있다. 트러스 총리는 선거 공약을 지키지 못해 사임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취임 44일 만에 사임을 발표한 그는 "다음 주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장 음식 결제하는 미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 몬타운시의 프리멘티 브리더스 식당에서 주문한 포장 음식을 결제하며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설

어느 종합병원 경영 문제

전주 어느 종합병원이 외형 확장에 너무 치중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직원들은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갑작스런 계약 해지로 불거진 수백억 원대 소송도 문제였다.

한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동안 운영권을 준 장례식장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 이 병원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병원의 한 병동은 건축비로 100억 원 정도가 쓰였다.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3배 가까이 돈을 더 들였다는 것이다. 병원 주차장을 만들 때도 건축비가 부풀려졌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병동과 부대시설 등을 새로 늘리는 데 따른 금융 대출과 이자 비용은 병원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병원은 지난 2021년과 3년 전에 흑자를 냈다. 그런데도 적자 경영에 허덕여왔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누적 결손 금액은 6백억 원이 넘는다.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려면, 우수 인력 확보와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수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지난날 임금성 수당과 성과급이 크게 줄었다고 호소한다. 퇴직금조차 쌓아놓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최근에는 병원 운영진이 긴급 회의를 열어 직원들의 급여 삭감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의 재정 상태는 매우 중요하다. 경영난은 의료진 이탈과 진료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병원 측은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왔다. 자구 노력과 혁신을 통해 보다 건실한 경영 투명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배달 대행 외국인 불법 고용

전북 도내에서도 불법 대행 외국인 불법 고용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급성장한 배달시장에 비해 배달기사 부족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사람 이름을 빌려주고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여 사는 전주의 한 대학가 일촌촌에는 배달용 오토바이가 즐비해 있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사람은 모두 외국인 유학생이다. 유학 비자로 한국에 온 외국인이 배달 대행을 하며 돈을 버는 건, 법 위반이다. 거주 또는 영주 비자를 받았거나 결혼해 이민 비자가 있는 외국인만 배달 대행 기사로 일할 수 있다.

외국인 배달 대행 기사들은 "단속이 사무실로 오면 안 되니까 웬만해선 대행업체 사무실에 안 있고, 밖에서 기다리다 휴대전화로 콜(배달 접수)을 잡는다"고 말한다.

일부 배달 대행업체는 한국사람 이름을 빌려주고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하는 꼴수를 쓰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면허증 없는 친구도 있어요. 사장님 이름으로 신청해주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니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한다.

불법 취업에 이름을 빌려준 한국 사람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정부 지원금을 타가는 일까지 있다. 배달 대행업체는 명의 대여자에게 배달 10만 원 정도를 준다.

몇 개월 지나면 실업 급여 대상이 되면서 근로 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배달 기사로 일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을 알고도 고용한 업주 역시 처벌 대상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배달 대행업체를 집중 단속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